세계 6대 다류, 부산서 즐긴다
〈茶類〉

제10회 부산기장국체茶문화축제 11월 5일 개최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
부산 정관 중앙공원 일원서
찻자리 60팀 참가 · 체험도
허황후차인대상 고선희 원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허황후 헌다례를 통해 가야문화와 불교의 역사를 고찰하고 대한민국 차의 시조를 새롭게 기리는 '부산기장국체차문화축제'가 10회째를 맞는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11월 5일 부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0회 부산기장국체차(茶)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개회는 오후 1시 정관 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이날 대한민국 제1호 차인을 기리는 허황후 헌다례를 봉행해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문화상 시상식과 10회를 기념하는 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찻자리를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세계 6대 다류를 체험하는 찻자리 60팀이 참여하며, 가족 체험 부스 및 차문화 발전을 위한 판매부스도 운영된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10년 동안 행사를 통해 다인들의 업적과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차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차인을 찾아 허황후대상과 김수로문화대상 등을 수여했다. 역대 수상자들은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장, 최순애 한국차인연합회 한국차인대학 분원장, 정영숙 한국다도협회 이사장, 김지순 제주 음식명인, 김영희 한국차인연합회 차인지 편집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인들이다.

이번 허황후차인대상은 고선희 문경차문화연구원장이, 김수로 문화대상은 박희준 다유락차문화원 대표가 수상한다. 고 원장은 문화 발전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극복하고 차문화와 문경지역 특성을 조합한 새로운 차문화행사 '문경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박 대표는 전국대학다회연합회와 한국차문화고전연구회, 한국발효차연구소 등을 조직해 차문화연구에 앞장서왔다.

부산기장국체차문화축제는 무엇보다 차를 통한 화합의 장으로 교류를 이어왔다. 매년 한 · 중 · 일의 실력 있는 차인을 초대해 뛰어난 차문화를 지역민에게 소개했다. 세계 6대 다류 찻자리 대회와 시음 찻자리를 제공해 차공양을 올렸으며 각종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 및 가족들을 위한 힐링의 장을 선사했다. 아울러 중국 자사호와 기장 도예촌의 도자기 문화를 교류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인도 타타그룹에서 운영하는 아쌈 지역 차밭의 관계자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며 문화교류에 앞장서왔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은 11월 5일 부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0회 부산기장국체차(茶)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이사장 보혜스님의 헌다례. 자료사진

이사장 보혜 스님은 "함께하는 차인들의 정은 더 없는 반갑다. 차생활이 깊게 물든 차인들, 언제 봐도 변함없는 도반 같은 차인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축제 때마다 서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 된다"며 "가야문화를 이끈 대장부 같은 허황후는 김해 허씨 시조이며 불교와 차의 시조다. 10년 동안 발전한 차문화축제가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아름다운 장으로 회향해 진심으로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은 제9회 전영택문학상(시부문)을 수상했다. 10월 17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보혜 스님은 "전국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장르별로 작품의 우수성과 작가 활동을 심사하는 전영택문학상을 수상해 큰 영광"이라며 "문학상의 뜻에 따라 창작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글을 쓰라는 의미로 받아 향기로운 글을 쓰는 문인으로 거듭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전영택문학상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주관하며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범어사,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지정

안치소 · 야전병원 역할도
10월 23일 인증서 전달식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범어사는 국립현충원의 시원(始原)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범어사는 전사자를 위한 추모 위령재를 봉행하고 야전병원의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북한군의 공격으로 부산은 대한민국 임시수도로 정해졌고, 범어사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의 안식처를 담당했다. 이뿐 아니라 '순국전몰장병 영현안치소'를 설치해 국립현충원 역할을 수행했다.


1952년 4월 6일 현충시설인 범어사에서 봉행된 제1회 합동추도식.

1952년 4월 6일 범어사 제1회 경남지역 전몰장병합동 추모식을 봉행했으며, 그해 6월 6일에는 전국 군경합동위령재를 봉행했다. 전몰장병합동 추모식은 조실이었던 동산 스님이 법주(法主)를 맡아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유엔군사령관, 외교사절단, 미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 백선엽 장군 등도 참석한 국가 차원 행사로 치러졌다. 이어 1953년 8월 21일 제3차 3군 추도식 및 3군 전몰장병 합동추도식을 봉행하며 전쟁 당시 야전병원 및 국립현충원 기능을 담당했다.

범어사는 지난 1월 17일 부산보훈청에 현충시설 지정을 신청했으며 5월 11일 현충시설로 결정됐다. 범어사 현충시설 지정 인증서 전달식은 팔관회가 열리는 10월 23일 호국영령위령재에서 진행됐다.

인증서 전달식에는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강관범 육군 53보병사단장, 이상식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주성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김주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김선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지부장 등 관계자와 부산지역 9개 보훈 단체 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지 보운 스님은 "6 · 25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범어사에 '순국전몰장병 영현안치소'를 설치하고, 불교는 국가의 위기 속에 자비의 수호신장으로 역할을 다해 위안을 안겨주는 사명을 지켰다"며 "이번 현충시설 지정은 범어사와 불교의 호국 역할을 인정받고 위상을 올린 큰 의미가 됐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자 건강증진 도움 되길"

부산불교교육대학–거인병원 MOU…의료혜택 제공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부산 정형외과 거인병원(대표원장 이승준)이 불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거인병원은 10월 18일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환자 편의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불교교육대학 직원과 학생들은 거인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한해 비급여 진료 부문 할인 혜택을 받는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학장 범혜 스님은 "좋은 의료기관과 인연을 맺고 많은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육체의 병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병도 육체의 영향을 받으니 두루 잘 다스리는 의술을 펼쳐 불자들의 건강증진에 힘써주시라"고 인사했다.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은 "스님 말씀처럼 육체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도 잘 보살피도록 하겠다. 모든 분들을 정성으로 돌봐 건강하고 행복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거인병원은 지난 2022년 11월에 개원한 정형외과 중점병원이다. 정형외과 외 신경외과, 내과 등을 진료하며 관절 및 척추, 스포츠 의학을 전문으로 담당한다. 의료진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3개 병상을 갖춘 복합의료시설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임진왜란 순국선열 넋 추모

동래구불교연합회 '동래 임진의총 추모재향'



임진왜란 431주기를 맞아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 스님들이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는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용하)는 10월 13일 부산 금강공원 내 동래임진의총에서 '임진왜란 431주기 동래 임진의총 순국선열 추모재향'을 봉행했다. 추모재는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용하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소속 스님과 장준용 동래구청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용하 스님은 "주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발원하며 정성을 다해 추모재를 올린다"며 "모든 국민이 안락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동래임진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막아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순국선열의 유골을 거두어 모은 무덤이다. 2000년 전등사 주지 도문 스님이 동래구청과 협의 후 매년 음력 4월 15일 재를 올렸으며, 2010년부터는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일에 맞춰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가을음악회로 힐링 선사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0월 15일 경내 독성각 잔디마당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홍법사는 음악회에 앞서 아미타경 48독 독송기도를 진행하며 수행의 가치를 알리고 싱잉볼 명상과 관현악 연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사진〉

(사)싱잉볼치유의소리가 주관한 이번 가을음악회는 동림소년소녀합창단과 세향합창단의 무대와 모듬북 협주곡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으며, 특히 아미타 도량 홍법사의 풍경과 어울린 정취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홍법사를 찾은 시민들은 잔디마당에 마련된 의자에 편히 누워 음악회를 감상했으며, 불자들은 독성각 및 나무 그늘 아래 등에서 음악회에 참여했다.

심산 스님은 "문화를 누리고 가을소풍과 같은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쉼을 얻고 힘을 얻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 도 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박덕수
총무부장 강시용
교무부장 정도웅
교육부장 구성해
재무부장 지설혜
사회부장 김진철
규정부장 윤갈웅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세운
종의회부의장 김경천
황세열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서덕재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 cheontae 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
수좌 향우 명신
주지 현 덕
신도회장 김명진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